

온라인에서 무료로 즐기는 '명품 클래식'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 600여편 공연 감상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매일 한편 '나이틀리 오페라 스트림'
빈 국립 오페라
'토스카' '피가로의 결혼' 등 '지금 감상하기'

최근 코로나 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공연들이 취소·연기됐고 대형 공연장들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 오페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극장들이 온라인 무료 공연에 나섰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살펴보자.

다음달 19일까지 문을 닫기로 한 베를린 필하모닉은 '디지털 콘서트홀'을 통해 무료 음악회와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콘서트홀'은 196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베를린 필이 진행한 약 600편의 공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유료 운영이 원칙이다.

무료관람을 위해서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고 상품권 코드로 'BERLINPHIL'만 입력하면 된다. 31일까지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무료 공개된 콘텐츠 중에는 올해 베를린 필이 정기공연에서 연주한 작품들과 코로나 19로 취소된 공연을 관객 없이 녹화한 영상들도 포함돼 있다. 베를린 필의 음악감독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루치아노 베리오 '신포니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보에 협주곡 라 장조 o. op. AV 144', 상임 지

휘자 키릴 페트렌코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3악장 교향곡', 베른트 알로이스 치머만 '알라고아나(브라질 카프리치오)', 발레 모음곡,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댄스 op. 45' 등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3월 공연을 모두 취소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지난 17일(한국시간)부터 '나이틀리 오페라 스트림(Nightly Opera Stream)'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1편의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0시간 동안 시청할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17일 대표작인 '카르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라보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등을 선보였다. 24일부터는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작품을 선보이는 '바그너 주간'으로 24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업로드했고, 25일 '라인의 황금', 26일 '발퀴레', 27일 '지그프리트', 28일 '신들의 황혼', 29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30일 '탄호이저'를 이어서 선보일 예정이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 등록 없이 바로 '지금 감상하기(watch now)'를 클릭하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문을 닫는 빈 국립오페라단도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무대에 올렸던 오페라와 발레 영상을 매일 한 편씩 보여준다. 현지 시각 오후 7시 또는 5시(한국 시간으로 다음 날 오전 3시 또는 1시)부터 24시간 동안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다.

19일부터 베르디 오페라부파 '팔스타프', 푸치니 '토스카', 로시니 '신데렐라', 바그너 '니벨룽겐의 반지' 등을 선보였다.

24일에는 도제니티 '사랑의 묘약'으로 관객과 만나며 25일 로시니 '신데렐라', 26일 푸치니 '토스카', 27일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28일 바그너 '신들의 황혼', 29일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이 스트리밍 서비스된다. 그밖에 '피가로의 결혼' (30일), '사랑의 묘약' (31일), 스타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 (4월1일), 입센 '페르퀀트' (4월 2일)를 공개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대외협력전 초대



'인왕제색도-사계'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20년 제1회 전시 대외협력전에 초대됐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만리동 광장 부지 앞 우리은행 중립지점 전면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스크린 '서울로미디어캔버스'를 통해 미디어아트와 영상콘텐츠 등 빛으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크로스 오버 쇠라', '다시 태어나는 빛', '김홍도-묵죽도', '아사천에 매화꽃 피었네', '인왕제색도-사계' 등 고전 작품에 디지털을 접목해 현대적 가치를 입힌 총 5점의 영상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작들은 영국 테이트모던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국내외의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됐던 작품들이다.

이 작가는 올 하반기 로마, 스페인,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등 해외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5월 서울 사비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상담창구 운영

코로나19 피해 문화예술인·여행사 대상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문화예술인(단체) 및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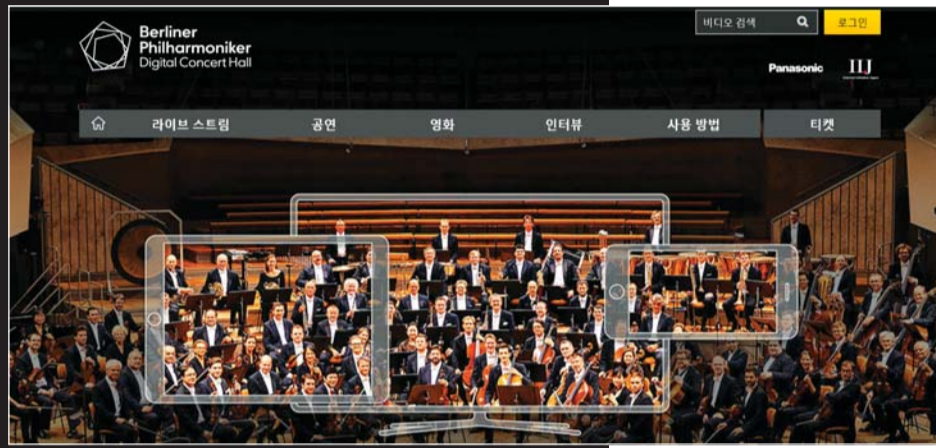
재단은 4월 개소 예정인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조기에 가동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해 문화예술인 피해를 대응할 계획이다. 상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접수받고, 예술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 창작지원금 신청 및 예술활동증명 등록 등 행정서비스도 대행한다.

재단은 또 올해 국비지원을 받아 신규로 추진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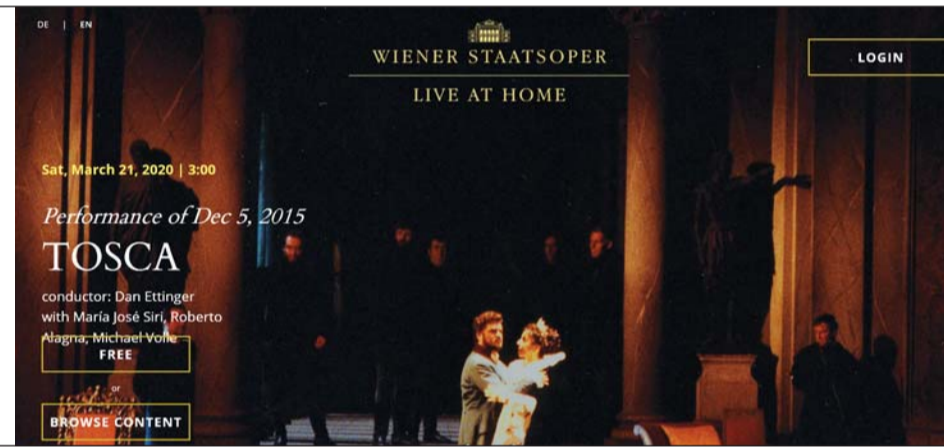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5명의 예술인이 팀을 이루어 기업, 단체 또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6개월 동안 협업을 통해 수행한다.

그밖에 문화예술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상담조사 과정에서 지역내 여행사들이 요청한 도내 관광자원 설명회 및 팬투어도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6월 이전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오페라단 등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 공연 서비스를 제공한다.



QR코드·팝업창...국민 외국어 표현 이해도 61.8점

문체부조사...일상 속 외국어, 70대 이상은 28.4점으로 세대간 차이 커

QR코드(정보부니), 팝업창(알림창), 모바일 앱(이동통신·앱 응용프로그램), 패스워드(암호·비밀번호)··· 위에 열거한 외국어는 세대 간 이해도 격차가 많이 나는 표현이다. 60대 이하는 70%이상이 이해하지만, 70세 이상은 10%남짓 불교하다.

일반적으로 쉽게 알아들을 것으로 보이는 외국어 표현조차 세대 간 이해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어 표현 3500개 중 응답자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30.8%에 불과해 쉬운 우리말로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글문화연대가 공동으로 조사한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외국어 표현 3500개에 대한 이해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은 61.8점이었으며 60대 이하는 66.9점이었다. 그러나 70세 이상은 28.4점으로 세대 간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컸다.

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60대 이하에서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1378개(39.4%)인 것에 비해, 70세 이상 60% 이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242개(6.9%) 뿐이었다. 외국어 표현 1245개는 70세 이상 응답자의 10% 이하만이 이해했다. 이 가운데는 루저(실제자), 리워드(보상금), 스트리밍(바로 재생), 스킵(기술), 메디컬(의료), 스리디(3D·삼차원) 등의 단어가 짝했다.

또한 일상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6.1%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국어 표현에 부정적이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이처럼 외국어 새말이 들어와 신문맹률이 높아지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새말모임'을 운영해 대체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드라이브스루 진료(승차 진료), 팬데믹(세계적 유행), 비발(침방울) 등이 그러한 예다.

문체부는 "사회적 소통이 중요한 상황에서 쉬운 우리말이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보도자료, 보고서 등에 어려운 외국어 사용을 줄여 나가도록 평가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4~79세 국민 1만1074명에게 온라인(10~60대) 및 개별 면접(70대)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국어 표현 3500개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